



세상을 온통 투명한 얼음으로 뒤덮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시작된 겨울, 따뜻한 난로 위 모락모락 김을 내며 끓는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이 그리워진다. 2001년 설립된 현대홈쇼핑, 설립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곳의 안전을 책임져온 김상호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안전과 걸어온 25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대홈쇼핑 김상호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 전기기사에서 안전총괄책임자로...

올해로 꼭 선 살이 된 김상호 안전관리자는 속리산 밑 충북 보은 마로면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군복무를 마치던 1985년 9월 당시 금강개발산업(주)(現 현대백화점)의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공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입사 당시 시설 면에서나 안전의식수준에서나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잦은 재해가 발생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안전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 현대백화점에서 일하던 그는 남다른 능력과 안전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처음 설립된 현대홈쇼핑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부터이다. 신생회사에서의 안전관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그는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마침내 안전, 환경, 소방, 전기, 기계, 건축 등 전 분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 안전,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는 일

안전뿐 아니라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의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경험은 물론 관련 법규나 전문지식도 상당부분 필요하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즐겨하는 그는 전공인 전기분야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지식을 쌓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로자, 이곳 천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로서는 하루 24시간이 짧게



S: 어느덧 2010년 새해가 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동시에 스스로 안전을 실현해 나감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자해 없는 현장, 안전을 위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왼쪽부터 이남주 기사, 이유진 사원, 김상호 팀장, 박성준 기사, 한대오 대리, 임승국 대리



느껴질 정도다. 관리자가 되면서부터 그가 지켜온 원칙은 안전에 있어서도 소통이 중요하며 혼자서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부하직원들과 근로자와의 회의나 제안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위험요인이라든지 개선 대책들을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평소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안전도 지켜나갈 수 있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영진들을 끝까지 설득시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사고는 절대 경험으로 배우려고 하면 안 돼

하루에도 점검을 외치며 꼼꼼하게 챙기는 그도 한 때는 재해로 끔찍한 결과를 얻은 뻔 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 젊은 전기공학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런 과한 자신감이 앞섰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변압기 부분 수리작업을 하다 22,000V에 감전이 되었다. 다행히 통전이 되어 목숨을 건지고, 세월이 지나 지금은 완쾌가 되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열정을 심어주었고, 지금껏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삼아 매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결국 사고는 절대 경험으로 배울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안전전도사가 되었다.

### 2가지 큰 기쁨과 희망

2007년, 지금의 사욕을 짓기 위해 그는 건물의 소방시설과 안전을 고려한 도면설계작업에 참여하였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건설현장을 누비기를 여러 해, 사욕이 완공되던 순간, 그는 뿌듯한 감동을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난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천여 명이 사용하던 집기며 방송장비 등 5톤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짐을 사고 없이 이전해야 했던 것, 관련 실무자들과의 철저한 협의와 빈틈없는 계획으로 사고 한 건 없이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첫 방송을 하던 날, 그는 또 한 번의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새해, 지난 한 해 무재해달성에 이어 올해도 무사고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안전, 근로자가 바로 자신의 고객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